

우리말 문화의 외래어 적조현상

신문·방송계의 자정력 넘어선 외래어 남용, 겨레말 살릴 자성 요구

박용수

(사)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가을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남해안의 적조현상이 황금어장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신문이며 방송이 연일 아우성이다. 이 소란통에 기름배까지 가라앉아 바다를 시커멓게 덮는데도 종잇장 비슷한 것을 던져 기름을 건져올리는 그야말로 한심한 구제책 외에 다른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필이면 청정해역이라는 곳에서 적조가 일어나는가. 이 엄청난 재앙이 어디서 오며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아무도 그 까닭을 말하지 않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은 바다가 때없이 요상한 재주를 부린다고 생각하리라. 그럴까? 따지고 보면 적조가 일어나는 것은 강물 탓이다. 썩은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낙동강 탓이다. 이런 철이면 동해물이 내리 움직이고 그 해류를 타고 낙동강물이 서쪽으로 흘러가다가 진해 앞바다쯤에 이르러서 적조를 만든다. 적조가 매년 진해 앞바다에서 생겨남도 이런 까닭이며, 이것이 서쪽으로 번지면서 청정해역의 황금어장이 썩밭으로 바뀐다. 이치는 이렇게 단순하다. 이러함에도 낙동강 치수에는 별 관심들이 없고 바다만 보고 아우성인 것이다.

모호한 외래어 습관적으로 써

《출판저널》에서 우리 문학작품의 외래어 남용현상을 짚어 한마디 해달라는 청을 받고 이내 떠오르는 생각이 남해안 적조 소동이었다. 한국문단이라는 바다에 적조피해가 막심하니 그걸 좀 따져보라는 말씀이지만 적조 원인이 바다에 있지 않듯이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려는 일부 문인들의 대국적인 창작정신(?)인지는 몰라도 여러 나라 외래어를 매끄럽게 써 넘기는 예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적조현상이 결과적으로 자정력의 한계를 넘어선 많은 양의 썩은 물이 바다로 흘러든 데 기인하듯, 문단이라는 넓은 바다의 한 구석을 흐리게 하는 문학적 적조현상은 썩은 낙동강물과 비슷한, 자정력을 넘어서는 윗물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큰 원류를 신문·방송쪽에서 보고 있다.

민족문화 중흥의 주역으로서, 또 가장 침

남해안의 적조현상은 자정력의

한계를 넘어선 많은 양의

썩은 물이 바다로 흘러든 데

기인한다. 문학적 적조현상 역시

그 원류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한

신문·방송언어의 오염에 있다.

어원도 뜻도 모호한 외래어의

남용은 통일의 민족적 대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남북언어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사와 방송사가 지고 있는 책무란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민족사적 소명의식이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고, 어원도 뜻도 모호한 외래어를 닥치는 대로 쓰는 버릇이 극에 치닫고 있다.

‘슈퍼선데이’ ‘스포츠 뉴스’ ‘논픽션 30’ ‘양코르 베스트극장’ ‘헤드라인 뉴스’ 따위 시청자가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마다 쓰고 보는 외래어들이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알리는 보도의 기능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그만큼 해악도 클 것이다. 알기로는 방송사에도 언어심의위원이 있다. 위원 가운데는 당연히 한글학자와 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이 지경이다.

방송분야가 이러하면 신문사들이라도 걸고 넘어지려는 주변머리를 가져야겠는데 한술 더 떠서, 요즘 신문사에서 내놓는 주간·월간지치고 외래어를 표제로 삼지 않은 잡지가 거의 없다. 여기서 지면에 그 수많은 잡지 이름을 늘어놓자니 지면이 없고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나 싫어 한숨이 나올 뿐이다.

민족은 언어공동체이다. 같은 말을 쓰는 겨레불이가 모여 나라를 세우므로, 나라말이란 곧 겨레말을 일컫는다. 한 나라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말을 쓰는 민족은 언어적 갈등을 빚게 마련이다. 통치력에 눌러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실례를 보자.

소련이 무너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외래어 흡수는 남북언어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상은 언어가 다른 민족끼리의 분리 독립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했고 ‘벨기에’도 남북으로 분리 독립했다. ‘유고’는 자기네 고유의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고어를 모르는, 곧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취업의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동의 끝간 데 모를 난리도 겹으로는 종교문제인 듯 보이지만 속은 언어분쟁이 아닌가.

우리의 경우,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깊어진 남북언어의 골이 있어 공동체의 바탕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으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신문사와 방송사가 앞장서서, 배운 사람도 고개를 가웃거리야 하는 온갖 외래어를 마구 써대니, 이 판에 통일이 된다면 다른 두 말뚝이 벌일 갈등과 알력이 민족분열이라는 회복키 어려운 새로운 비극을 들고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강제적인 정책보다는 각자의 자성

나라말을 갈고 다듬어 꽃피우는 일은 어차피 문인 몫이기에 일부 문인들의 외래어 남용은 극히 위험한 현상임에 틀림없으나 나는 걱정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겠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현실에 민감한 거울쪽 같은 부류가 있게 마련이며, 이런 부류란 사실 별 해독이 안되기 때문이다.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데는, 올곧은 민족의식과 역사관으로 민족문화를 길러내

는 절대다수의 문인을 우리 문단이 지니고 있다는 데서이다. 오늘의 독서층을 이룬 대하소설이나 몇십만부씩 나가는 시집 속에는 이 시대의 아픔과 따뜻한 겨레사랑이 넉넉히 담겨 있고, 이들 작품에 하나같이 겨레말을 살려 쓰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점이다.

이는 곧 독자들이 우리 고유의 겨레말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상대적으로 시사만화류의 현실영합에 급급한 반민족문학을 외면하는 큰 흐름이 우리 문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족문화에 대한 책무감이 없어 보이는 신문·방송의 외래어 남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성을 가진 정책을 통해 이런 관행을 막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역대 정권이 신문·방송사에 덜미를 잡힌 꼴이고 그 내력 또한 깊고 오래여서 언론사를 다스릴 무슨 법령이 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경실련’이나 다른 시민운동단체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돌려주었으면 싶지만, 이들 또한 숲만 보고 산을 보지 않으려는 현실영합적 운동에 치중하고 있으니 누구를 잡고 걱정인들 하겠느냐.

그러나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큰 과제는 동원된 시민운동같은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차피 문인 몫인 바에야 문인 각자의 자성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방송이나 신문 잡지에 글을 쓰는 필진의 허심한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할 때이다. ❖